

아 침

획, 획, 획, 소꼬리가 부드러운 채스직질로

어둠을 쫓아,

깜, 깜, 어둠이 깊다깊다 밝으오.

땀물을 뿌려 이여름을 길렀오.

뉘, 뉘, 풀뉘마다 땀방울이 맺엇소

꾸김살 없는 이아침을,

深呼吸하오 또하오.

一九三六、

아 침

획, 획, 획, 소꼬리가 부드러운 채찍질로

어둠을 쫓아

깜, 깜, 어둠이 깊다 깊다 밝으오.

땀물을 뿌려 이여름을 길렀소.

잎, 잎, 풀잎마다 땀방울이 맺혔소.

꾸김살 없는 이 아침을

심호흡하오 또 하오.

1936.